

실적악화·SG사태에 투자심리 악화... 증시 변동성 커진다

4일 美 연준 정책금리 결정 따라
주식시장 단기 방향성 달라질듯

이번주 코스피 2420~2550 예상
"대형주 중심 반등 가능성 높고
배터리 제외 성장주 수급 확산"



지난달 28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2495.81)보다 5.72포인트(0.23%) 상승한 2501.53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50.21)보다 7.38포인트(0.87%) 하락한 842.83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8.0원)보다 0.3원 떨어진 1337.7원에 마감했다.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부진한 1분기 실적,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사태, 금융시장 불안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5월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향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수급 악화, 금융불안 우려 지속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FOMC 결과가 증시 단기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501.53으로 전주 대비 1.68% 하락했으며 코스닥지수도 842.83으로 2.99% 떨어졌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한풀

썩었다. 이에 더해 국내 기업 실적 악화, SG증권 창구에서 대거 쏟아져 나온 매물 영향으로 일부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미국 등 각국의 정책금리 결정과 경제지표 발표 등 대외 이벤트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4일 FOMC 정례 회의를 열어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0.25%포인트 인상 확률은 87%, 금리 동결은 13% 수준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25bp 인상은 이미 금융시장에서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물가 궤적, 미국 은행권 리스크,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판단을 어떻게 언급하는지에 따라 주식시장의 단기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변동 폭으로 2420~2550을 제시했다

FOMC, 유럽중앙은행(ECB), 호주중앙은행(RBA) 회의 등 중앙은행 이벤트

이외에도 주중 주식시장은 지표와 실적 이벤트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대장주들의 실적은 종료가 된 만큼, 이들 실적이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으나, 애플 실적, 수출 및 ISM, 국내 신용잔고 이슈 등 여타 대형 대내외 이벤트와 맞물리면서 개별 업종 및 종목군 간에 변동성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동성 확대 장세에는 실적이 좋은 코스피 대형주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혁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5월에는 달라진 증시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코스피는 중국 노동절(5월1일), 미국 FOMC(5월3일)를 기점으로 대형주 중심의 반등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은 2차전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배터리를 제외한 성장주로 수급이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집값 하락폭 3주째 둔화... 매수 심리는 ↑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주비 0.07% ↓
노원구 -0.03% → -0.04% 상승 전환
도봉구 -0.23% → -0.29% 하락폭 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매매수급지수는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08%)보다 0.01%포인트(p) 축소되면서 3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는 노원구(-0.03% → -0.04%)가 중계·상계동 구축위주로 급매물 소진되며 지난해 1월 첫 주(0.03%)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성북구(-0.16% → -0.16%)는 정릉·길음동 위주로 하락폭이 이어졌고, 광진구(-0.16% → -0.15%)는 광장·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도봉구(-0.23% → -0.29%)는 창·쌍문·방학동 대단지, 강북구(-0.11% → -0.13%)는 미아·변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21% → -0.19%)가 내발산·염창동 구축, 관악구(-0.17% → -0.15%)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구로구(-0.18% → -0.21%)는 항·고척동 위주로 하락폭이 증가했다.

동남권의 경우 송파구(0.04% → 0.04%)가 3주 연속 상승세다. 강남구(-0.01% → -0.02%)는 지난해 5월 마지막 주(0.01%) 이후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 서초구(0.04% → 0.03%)는 2주째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심리 위축과 집값의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가 유지 중"이라면서도 "일부 선호도가 높은 지역 내 주요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 양상

을 보이며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매수급지수는 8주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24일 기준)는 74.9로 전주(73.6)보다 1.3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부터 계속 60선에 머물다 3월 넷째 주(70.6)에 70선으로 올라선 이후 계속 회복하는 모양새다. 기준선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전히 매수세가 약한 모습이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책과 최근 급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8주째 올랐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김대환 기자 kdh@

용인 등 전국 9개 단지서 총 3367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 등 청약

5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9개 단지 총 3367가구(일반분양 303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마북동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해링턴플레이스진사', 충북 청주시 송절동 '해링턴플레이스테크노폴리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보주택의 경우 문을 여는 단지가 없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연휴를 앞두고 분양시장이 휴식기에 들어간다.

DL이앤씨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일원에 'e편한세상 용인역플랫폼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투시도. /DL이앤씨

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999가구 규모다. 단지는 첨단자족도시로 개발되는 용인플랫폼시티에 조성될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다. 플랫폼시티의 중심부에 위치한 GTX-A 용인역이 오는 2024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착공 면적 감소

국토부, 준공면적은 전년비 9.7% ↑

올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와 착공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1일 국토교통부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8.5%, 착공 면적은 28.7% 줄었다. 반면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1분기 건축 허가 연면적은 연평균 1.5% 증가했고, 동수는 9.0% 감소했다. 올 1분기 건축 허가 면적은 수도권(1561만7000㎡, 14.1% ↓)과 지방(2156만4000㎡, 4.1% ↓) 모두 감소했다.

지역별로 ▲대전 271.6% ▲인천

87.8% ▲부산 50.4% 순으로 9개 시도에서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했고 대구, 충북, 전남, 세종, 경기, 경북, 광주, 경남은 감소했다.

1분기 착공 면적은 수도권(927만8000㎡, 32.3% ↓)과 지방(942만2000㎡, 24.9% ↓)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역별로 ▲대전 31.8% ▲부산 26.7% ▲강원 12.0% 순으로 3개 시도에서 착공 면적이 증가하고 대구, 인천, 세종은 큰 폭으로 착공 면적이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3166만6000㎡, 동수는 9.1% 감소한 3만3271동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준공 면적은 수도권(1693만9000㎡, 12.3%)과 지방(1472만6000㎡, 6.9%) 모두 증가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하반기 자율주행 레벨3 車 출시 수혜株



센싱카메라 핵심공정 장비 선두주자
센서 성장전망... 적정주가 3만1500원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은 퓨런티어에 대해 자율주행을 위한 센싱 카메라 핵심 공정 장비 시장의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자율주행 시대에서의 수혜를 기대했다. 주가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적정 주가로는 3만1500원을 제시했다.

김재무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벤츠

는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해 독일과 미국에서 승인 받았고, 국내에서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SUV 'EV9', 제네시스 'G90'에 자율주행 레벨3 단계 수준의 기술을 탑재할 계획"이라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연내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카메라를 비롯한 라이다, 레이더 등 각종 센서 시장 또한 자율주행 시대에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퓨런티어는 2009년에 설립된 카메라 조립 장비와 검사 장비 제조업체로 지난해 2월 코스닥 시장에 특례 상장했다. 최대주주는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의 검사 자동화장비 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하이비전시스템(39.84%)이다.

국내 주요 카메라 모듈 생산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용 센싱 카메라 조립·검사 장비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 중인 삼성전기, LG이노텍뿐 아니라 현대모비스를 통해 현대·기아차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엠씨넥스, 세코닉스 등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리서치알음은 글로벌 전기차수증가와 자율주행 탑재 지속 확대에 따라 카메라 모듈기업의 케파(생산능력) 증설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신하은 기자 godhe@